

부록

부록1. 서울둘레길 코스정보

1코스

코스명	1코스-수락·불암코스	지역	노원구
개요	외사산의 1코스로서 수락산과 불암산을 통과하는 코스이다. 서울의 대표적인 수락산과 불암산을 트래킹하며 숙련된 트래킹기술을 요하지는 않도록 정상을 통과하는 것이 아닌 불암산을 둘러 통과하는 노선으로 대체적으로 완만하다. 이 코스는 수락산과 함께 연계되어 태릉까지 이어지며 노선주변으로 당고개역, 상계역, 화랑대역등이 인접한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도봉산역~서울창포원~덕릉고개~넓은마당~경수사~성관사~넙적바위~학도암~태릉~화랑대역	
	거리	17.8km	소요시간 11시간
교통편	출발지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2번 출입구	
	도착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입구	

서울창포원

서울창포원은 총면적 52,417㎡에 꽃창포 등 붓꽃을 주제로 한 서울시의 생태공원으로 12개의 테마로 구분 조성되어 시민들에게 생태교육 및 여가와 휴식공간을 제공함.



덕릉고개

덕릉고개는 노원구의 수락산과 불암산을 연결해주는 곳으로 생태육교를 설치하여 사람은 물론 동물도 이동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다리임.



넓은마당

넓은마당은 불암산 둘레길 노선에 위치한 공원으로 휴식시설과 편의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용객들과 동네 주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임.



경수사

경수사는 1955년 사기옥(史基玉)님께서 건립한 절로 규모는 크지 않으나 당고개 근처 지역 주민과 불암산 등산객이 많이 찾고 있음. 태고종파 계열의 사찰로 최초 건립 시에는 작은 움집에서 시작했으나 사기옥님께서 친아버지를 위해 기도하고 난 뒤 그 병환이 낫자 부처님의 정신을 이어받고 기리고자 하여 대웅전과 칠성각 등을 마련, 확장하였음.



성관사

성관사는 상계동에서 불암산으로 오르는 초입에 아파트와 가까이 있는 절로 전주 장수 성관사의 대각선원장인 월성스님이 제자 양성과 수좌를 지도하기 위해 창건하였음.



넓적바위

넓적바위는 동네 사람들에게 의해 '밑바위'라고 불리었으며 도봉산의 여성봉과 함께 발견된 실물과 가장 닮은 여성의 상지이라고 함. 바위 옆에 설치된 의자의 글귀가 인상적임. - 光風霽月(광풍제월): 맑은 날의 바람, 비 갠 후의 달, 즉 훌륭한 성품이나 잘 다스려진 세상을 뜻함.



수암사

수락산 중턱의 남향 길상지에 자리한 경관 좋은 사찰 수암사는 신라 진평왕 43년(621년)에 화랑세속오계의 원작자인 원광국사께서 삼국통일의 대업을 이루고자 창건하였음. 조선시대 병자호란 때 소실된 이후 석국법당만 남아 있던 것을 다시 중건함. 경내에는 1962년 도옥스님의 중창 당시에 세워진 25평 규모의 전통양식(단청)의 극락보전을 비롯하여 삼성각, 요사채와 1972년에 건립된 미륵입상 등이 있음.



학도암

학도암은 조선 인조2년(1624)무공화상이 불암산에 있던 옛절을 이곳으로 옮겨 창건함. 학도암에는, 큰법당, 삼성각 등의 전각이 있으며, 대웅전 뒤편 암벽에는 명성황후의 염원에 의해 1872년에 조성된 높이 22.7m, 폭 7m의 거대한 '마애관음보살좌상(서울시유형문화재 제124호)'이 있는데 조선후기의 뛰어난 마애상으로 평가받고 있음.



2코스

코스명	2코스-구릉~아차산코스			지역	노원구, 중랑구, 광진구	
개요	외사산의 2코스로 구릉산, 망우산, 용마산, 아차산을 통과하는 코스이다 대체적으로 산이 경사가 심한 편은 아니지만 한 코스에 산이 4개고 길이가 길어 시간이 많이 걸린다. 이 코스 중 구릉산과 망우산은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적인 산을 즐기며 트래킹할 수 있고 용마산과 아차산은 정비가 잘되어 있어 편안한 트래킹이 가능하다. 특히 아차산은 정비가 잘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쉽터와 약수터가 곳곳에 위치하여 어려움없이 트래킹이 가능하다. 또한 아차산 생태공원으로 인해 볼거리가 다양하다는 특성이 있다.					
코스 정 보	세부코스	화랑대역~중랑캠핑숲~구릉산~망우산~용마산~아차산~광나루역				
	거 리	16.8km	소요시간	8시간3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6호선, 화랑대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4번 출입구				

중랑캠핑숲은 개발제한구역 내 비닐하우스 등으로 훼손된 곳을 복원하여 학생소풍 및 가족단위 피크닉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공원, 인위적 시설을 최소화하고 건강한 숲을 주제로 한 생태학습 공원, 소규모 야외무대 설치 등 청소년 중심의 문화중심 공원으로 조성하였음.



망우산 일대 83만 2,800㎡의 공간에 조성된 망우묘지공원은 1933년 5월 27일부터 공동묘지로 사용되기 시작하여 1973년 3월에 2만 8,500여 기의 분묘가 가득 찼음. 이장과 납골을 장려한 결과 2005년 9월 기준으로 1만 7,041기의 묘가 남아 있음. 한용운, 오세창, 서동일 등 독립 운동가들과 방정환, 이충섭, 박인환 등 17인의 유명인사가 잠들어 있으며, 안창호 선생의 묘도 이장되기 전에는 이곳에 있었음. 산책과 조깅을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5.2km의 산책로 곳곳에 15인의 연보비가 놓여 있음.



해맞이광장 아차산내에 있는 해맞이광장은 해돋이뿐만 아니라 다채로운 축제가 열리는 곳임.



아차산 생태공원, 아차산 역사문화 홍보관	서울특별시에서 공원 녹지 확충 5개년 계획에 따라 조성된 아차산생태공원은 시민과 학생들에게 자연을 접할 수 있는 기회와 자연생태계 학습장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도시생태계의 생물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시민들에게 건강하고 건전한 녹지공간의 쉼터를 제공함으로써 도시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 있음. 아차산 역사문화 홍보관 : 아차산 일대의 다양한 유적지들을 소개하고, 관련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2009년 아차산생태공원 내 생태자료실 맞은편에 설치되었음. 홍보관은 지상1층, 66㎡의 작은 규모이지만, 내부는 알차게 구성되어 있음. 아차산 유적지와 관련된 패널, 항공사진, 중원고구려비 탁본 등이 있으며, 진열대에는 아차산에서 확인되는 토기와 기와류 등의 유물 일부가 전시되어 있음. 또한 각종 고구려 유적 및 한국 고대사와 관련된 동영상 및 이미지 자료와 체험을 위한 복식과 관련 기자재를 구비하고 있어 다양한 체험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음. 매주 월요일과 명절 당일을 제외하고 상시 개관하고 있으며(09:00~18:00), 문화유산해설사가 홍보관에 상주하면서 찾아오는 등산객과 관광객에게 자료를 제공하고 있고, 사전에 단체 예약을 한 팀은 '아차산역사문화교실' 진행을 통하여 아차산 유적지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받음.	
아차산4보루성터	보루성이라고도 불리는 보루는 사방을 조망하기 좋은 낮은 봉우리에 쌓은 소형 석축산성으로, 산성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군사시설을 말함. 아차산 일대 보루군은 출토유물이나 축성방법 등으로 보아 삼국시대의 유적으로 보이며, 분포지역으로 볼 때 고구려가 5세기 후반에 한강유역을 진압한 후 신라와 백제에게 한강유역을 빼앗긴 6세기 중반까지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정세를 규명하는 중요한 유적으로 평가됨.	
아차산성	아차산성은 백제 책계왕 원년(286)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성을 고쳤다는 기록이 처음 확인되는 삼국시대의 산성 유적임. 고구려 광개토대왕이 백제를 공격했을 때도 아차산성의 다른 이름인 아단성(阿旦城)이 등장하고, 고구려 장수왕이 한성백제를 공격한 뒤 개로왕을 살해한 장소로도 알려져 있음. 이후 한강 유역을 신라가 장악한 후에 고구려의 온달(溫達)이 신라와의 전투에서 전사한 장소로도 알려진 것처럼 한강 유역을 둘러싸고 삼국 간의 치열한 항쟁의 중심에 위치한 유적지임.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이후에는 아차산성 하단의 광나루와 한강을 통제하고, 이 일대에 행정력을 미치기 위한 치소(治所)로 고려시대까지 사용되었음. 해발고도 200m 산정에서 시작해 동남쪽으로 한강을 향하여 완만하게 경사진 산 중턱 위쪽을 둘러서, 둘레 약 1,038m의 성벽이 구축되어 있으며 내부 면적은 63,810㎡에 이름. 동쪽·서쪽·남쪽에 성문지(城門址)가 남아 있음. 산성의 형식은 테뫼식[鉢塼式]에 속하나 규모가 매우 크고 성안에 작은 계곡도 있어 포곡식(包谷式)으로도 보임. 현재 아차산성은 서벽과 남벽 일부의 성벽에 대한 보수정비가 이루어졌으며, 나머지 부분은 임시 복토하여 보호 중임. 아차산 등산로를 통해 서벽의 석축성벽 일부는 일반인의 관람이 가능하며, 다른 성벽과 산성 내부 유적지는 광진구청 문화체육과(02-450-7593)로 사전에 신청 후 관람할 수 있음.	

3코스

코스명	3코스-고덕·일자산코스		지역	강동구, 송파구		
개요	고덕·일자산코스는 광나루역에서 출발해 한강, 고덕산, 일자산, 성내천, 문정근린공원, 탄천을 경유해 수서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강길, 숲길, 하천길이 모두 포함되어 서울시의 자연경관을 보고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다. 또한 숲길은 높지 않은 고도로 수월한 산행이 가능하며, 주변에 역사문화관광지가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풍부하다. 코스가 긴 편으로 소요시간이 다소 길리지만 비교적 평탄한 지형으로 트레킹을 하기에 무리가 없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광나루역~고덕산~일자산~성내천~탄천~수서역				
	거 리	26.13km	소요시간	9시간 10분	난이도	하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 2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3호선, 분당선 4번 출입구				
연계코스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암사동선사주거지, 샬터공원, 명일공원, 길동자연생태공원, 일자산허브천문공원, 올림픽공원,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 문정근린공원, 가든파이브					

한강공원 광나루지구	강동대교에서 잠실철교 사이에 있는 광나루 한강공원은 한강 상류로부터 유입된 토사가 퇴적되어 자연스럽게 형성된 모래톱과 대규모 갈대군락지로 자연 그대로의 한강의 모습을 가장 잘 유지하고 있는 곳임. 서울시의 유일한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뱃놀이와 각종 수상레저활동이 금지되어 있어 물이 맑고 깨끗하며, 북쪽 아차산 수목의 푸르름과 2km에 이르는 한강둔치의 갈대밭이 잘 조화되어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함. 또한 광나루 한강공원은 철새들의 서식처이기도 함. 더욱이 근처에는 암사선사주거지 등 많은 문화유적지가 곳곳에 산재해 있어 자연과 문화가 잘 조화를 이루는 곳임.	
---------------	--	--

암사동 선사주거지	1979년 7월 26일 사적 제267호로 지정된 암사동 선사주거지는 1925년의 대홍수 때 한강이 넘쳐 유적 일부가 파손된 채로 토기편과 석기들이 발견된 이후 1967년에 유적을 발굴조사하고, 1971~1975년 재발굴조사를 거쳐 1980년대에 다시 발굴했음. 그 결과 수렵·채집으로 생활하며 취락을 형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집터와 빗살무늬토기[櫛文土器]를 비롯해 돌도끼·돌화살촉·굵개 등의 생활도구와 돌낚·보습과 같은 농기구 등의 석기가 대량 출토되었음. 이 유적에서는 서로 시대가 다른 3개의 문화층이 발견되었는데, 최하층인 제1문화층은 적갈색 사질층으로 움집[竈穴住居]터가 확인되었고, 내부에서 빗살무늬토기와 뼈조각이 출토되었으며 기둥자리의 흔적도 발견되었음. 중간층의 제2문화층은 흑회색 사질층으로 빗살무늬토기와 민무늬토기[無文土器]를 비롯해 청동기시대의 유물이 출토되었음. 제3문화층은 삼국시대 백제에 해당하는 문화층으로 빗살무늬토기 조각, 석기, 백제의 토기조각 등이 출토되었고, 독무덤[甕棺墓]과 건물터가 발견되었음. 집터는 둥근꼴과 모퉁임네모꼴[抹角方形]로 된 길이 5~6m, 깊이 1m 정도의 움집터로, 가운데에는 주위에 한 줄로 돌을 두른 화덕자리[爐址]가 있으며 저장구덩이 시설도 갖추. 네 모서리에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덮어 움집을 세운 것으로 보임. 기원전 4000~3000년 무렵에 우리나라 신석기시대 사람들이 살았던 움집터 유적으로 1981~1988년 유적지 발굴조사로 움집 등이 복원되면서 암사동 선사유적공원이 조성됨.	
--------------	--	--

샘터공원	샘터공원은 고덕주공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인 구릉에 위치하고 있으며 다리를 마주하고 방죽공원과 맞붙어 있음. 지어진 이름답게 공원 내에 약수터가 있어 지역주민의 발이 끊이지 않은 곳임. 넓직한 공원의 운동시설과 더불어 풍치 좋은 산책로가 공원 내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공 1단지 아파트 쪽으로 배드민턴장, 어린이 놀이터, 한우물 정자 등이 위치하고 있음. 주공 1단지 쪽으로 어린이 놀이터 양 옆으로 족구장과 게이트볼장이 있음. 어린이 놀이터의 그네는 높이 3미터 이상으로 우리나라 전통그네형식으로 지어져 있음. 게이트볼장은 활성화되어 있어 평일에도 운동과 더불어 여가를 즐기는 노인 분들을 볼 수 있음. 주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아침 운동장소와 산책로로 이용되고 있으며 지역주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파수꾼 역할과 더불어 휴식처인 쉼터로서 역할을 병행함.	
명일공원	숲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명일공원은 1971년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강동구 상일동 산26번지 일대 53,117㎡에 야생화단지, 생태연못, 건강보도, 인라인스케이트장, 고인돌 등을 조성함.	
길동자연생태공원	길동 자연생태공원은 생물 서식공간을 복원하고 시민들에게 자연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여 환경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하남시와 인접한 천호대로변 저습지에 조성한 공원임. 참나리, 패랭이 등의 야생 초화류가 여기저기 피어나고 말참자리, 호랑나비가 호숫가를 선화하며 귀여운 물총새와 꼬마물떼새가 먹이를 사냥하고 흰뺨검둥오리 부부가 호수를 누비는 길동자연생태공원에서는 다양한 생태학습프로그램이 연중 운영됨.	
일자산 허브천문공원, 일자산 가족 캠핑장	2006년 9월 21일 개원한 허브천문공원은 일자산 기슭 2만 5,500㎡에 색의 정원·감촉의 정원·향기의 정원·차의 정원·맛의 정원으로 분류된 허브원과 자생원, 약초원, 암석원, 온실, 관천대(觀天臺), 전망데크, 놀이터, 산책로 등이 조성되어 있음. 120여 종의 허브 3만 2,448본을 비롯해 약용식물과 자생식물 47종 9,138본이 심어져 있음. 공원바닥에 282개의 조명을 설치하여 쌍둥이자리·사자자리 등의 별자리를 연출하고, 빛의 색이 수시로 변하게 만들어짐. 길동생태공원 건너편에 있으며, 2008년 3월 22일 개원한 일자산자연공원과도 연결되어 있음.	
올림픽공원	서울 올림픽 공원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에 있는 공원임. 1988년 서울 올림픽을 위해 건설되었으며, 현재는 일반적인 종합공원으로 이용됨. 사이클·역도·펜싱·수영·체조·테니스 등 6개의 경기장 등의 경기 시설과 소마미술관 등 다양한 문화 시설들이 함께 있음. 올림픽 공원 건설 도중 발굴된 백제 유적지 몽촌토성은 공원 내에 자리함. 올림픽공원에는 야외조각공원을 비롯하여 88놀이마당, 음악분수 등과 같은 휴식공간이 조성됨. 기타 주요 시설로는 올림픽회관, 올림픽 파크텔, 몽촌 역사관 등 각종 편의시설이 구비됨.	

방이동
생태경관
보전지역

서울 송파구 방이동 443-8 일대에 있는 인공습지로 2002년 4월 15일 58,909㎡의 면적이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됨.
방이동 생태경관보전지역은 도심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인공습지로, 2007년 5월 관찰 데크, 조류전망대 등 생태복원사업을 통해 송파구 지역주민들의 생태교육장으로 활용됨.



문정근린공원

문정근린공원은 1993년 부곡~도농 간 철도계획의 취소로 미정비된 상태로 이용되었던 철도 부지를 2004년부터 2009년까지 연차적으로 송파구 도심 내 거점녹지축 및 시민의 건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한 공간임.



가든파이버

가든파이버는 총 6천여개의 점포가 입점하는 초대형 쇼핑물에 멀티플렉스영화관, 서점, 전시관, 스파시설은 물론 생산시설,기초산업용재판매시설,물류시설,지원시설 등이 총 망라되어 있는 원스톱 문화특구임.



4코스

코스명	4코스-대모·구룡·우면산코스		지역	강남구, 서초구	
개요	외사산의 4코스로서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대모산, 구룡산, 우면산을 거쳐 사당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대부분 산행코스지만 높지 않은 고도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며 산림자연자원이 풍부하고 서울시 조망이 매우 좋다. 또한 구룡산과 우면산 사이의 여의천, 양재시민의 숲, 양재천을 경유하는 길은 주변 경관이 좋으며, 평탄하고 아늑한 산책로로 간편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출발지인 수서역과 도착지인 사당역은 대중교통의 접근성이 아주 편리하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수서역~대모산~구룡산~여의천~양재천~우면산~사당역			
	거 리	16km	소요시간	7시간 34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3호선, 분당선 수서역 6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4번 출입구			
연계코스					

불국사	불국사는 대모산 북쪽 기슭 강남구 일원동에 위치함. 고려 공민왕 2년(1343년)에 진정국사가 창건하고 불국사라 했는데, 조선 고종 17년(1880년)에 네 번째로 이곳에 옮겨지는 것임. 이곳에 약사전이 있으므로 일찍이 '약사절'이라고도 불림.	
매한윤봉길의사 기념관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윤봉길의사의 업적과 살신성인(殺身成仁) 정신의 높은 뜻을 기리고, 계승 발전시키며, 선양하기 위하여 기념사업회가 주관하여 국민들의 성금으로 서울 양재시민의숲 안에 설립하게 되었음. 1988년 12월 1일에 준공된 매한 윤봉길의사 기념관은 대지 1,996평에 건평 743평,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윤의사의 유품과 생애사진, 훈장, 그리고 항일독립운동 관련사진 등이 전시되고 있음.	
양재시민의숲	서초구 양재동에 위치한 양재시민의숲은 숲이 좋아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로 이용됨. 현재 도심에서는 매우 보기 드문 울창한 수림대를 형성하고 있고 특히 가을에는 감, 모과 등 과일이 열려 풍성한 자연을 만끽할 수 있음.	
서초문화예술공원	서초문화예술공원(文化藝術公園)은 양재시민의숲 제3지구에 1994년 조성된 공원으로, 경부고속도로가 가로질러 있어 양재시민의숲 제1,2지구와는 전체적으로 독립된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 공원 산책로를 따라 전시된 다양한 소재의 조각작품들은 문화 예술 공원의 면모를 느낄 수 있게 함.	

대성사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92호(1993.04.03. 지정)로 예술의전당 위쪽에 위치한 대성사는 한국전쟁 때 소실된 것을 1954년에 재건했으며, 사찰에 모셔진 불상은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백용성 스님이 만들었다고 전해짐. 대성사 유래 : 백제 제15대 침류왕 1년(384) 인도의 마라난타 대사가 설법하러 백제에 오는 동안 병이 들었으나, 우면산 생수로 병을 고쳤다고 함. 그리하여 우면산 기슭에 대성초당을 창건함으로써 이 우면산 대성사는 백제 불교의 성지가 되었음. 조선 명종 때 보우대사는 이 절에 머물면서 불교 중흥을 구상했다고 전해짐. 대성사는 백용성 큰스님이 한용운 대사를 앞세워 천도교 손병희 교주, 기독교 김선주 목사, 기독교 이필주 목사 등과 교류하여 3종교가 합심하여 민족중흥과 종교 중흥을 도모한 성지로 유명하다고 함.	
헌인릉	헌인릉(獻仁陵, 사적 194호)은 서초구 내곡동에 있는 조선조 왕릉임. 이곳에는 조선 3대 임금 태종과 원경왕후 민씨의 능인 헌릉, 23대 임금 순조와 순원왕후 김씨의 능인 인릉이 있음. 능 아래쪽에는 약 56,200㎡(17,000여평)의 오리나무가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이 숲은 2005년에 서울시에서 생태경관 보전지역으로 지정하였음.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1962년 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교육원(1부 2과)으로 출범한 인재개발원은 1979년 8월 31일 현재의 장소로 신축·이전했음. 서울시 공무원들을 경쟁력 있는 핵심인재로 양성하기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함. 이론교육 외에 현장실습과 체험학습, 참여와 토론, 문제해결능력 향상, 나눔과 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또한 서울시 공무원시험의 출제와 관리, 면접과 선발, 합격생들에 대한 교육훈련을 직접 주관함. 공무원 채용 및 자격시험 안내(응시자격 시험과목 등), 시험공고, 합격자 안내(경쟁률 및 합격선), 인터넷 시험 접수 등을 관할하며, 해외 공무원들의 위탁 교육 등 국제연수원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음.	
우면산 자연생태공원	우면산 자연생태공원은 도심 속에서 자연학습이 가능하고 생태보전의 중요성을 알리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0년 4월 추진계획을 수립한 뒤 같은 해 11월 25일 착공하여 2003년 12월 20일 준공하였으며, 2004년 7월 23일 개원하였음. 총 면적은 31만 8,644㎡이며 주요 시설은 숲생태계 관찰림과 습지생태계 관찰원, 나비 관찰원, 야생조류 관찰원, 수서동물 관찰원, 도시림 및 곤충 관찰원, 풀꽃 관찰원, 참나무류 층위구조 관찰원, 양지성 식물 관찰원, 참나무 문화 관찰원, 식이식물 관찰원, 염료식물 관찰원, 계곡경관, 관찰소, 경관 관찰소 등의 관찰원과 자연해설판 14개, 1,320m의 자연탐방로, 명상의 숲, 야외강의장, 목교, 2,000㎡의 저수지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5코스

코스명	5코스-관악·삼성산코스		지역	관악구, 금천구		
개요	관악·삼성산코스는 사당역에서 출발해 관악산, 삼성산을 거쳐 석수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관악산은 높은 고도로 등반을 위한 산행이 대부분이지만 이 코스는 관악산의 둘레길을 따라서 걷는 코스로 자연경관이 매우 훌륭하고 곳곳에 역사문화유적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어 볼거리 또한 매우 풍부하다. 대부분의 구간이 숲길로 비교적 난이도가 있는 코스지만 서울의 산림자연환경을 느낄 수 있는 최적의 코스이기도 하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사당역~관악산~삼성산~석수역				
	거 리	13.5km	소요시간	6시간 3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2호선, 4호선 사당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1호선 석수역 1번 출입구				
연계코스						

관음사는 관악구 남현동 519-3번지 관악산 북동 기슭, 남태령 서쪽에 자리하고 있음. 예로부터 서울 근교 사찰 가운데 영험 있는 관음 기도도량 중의 하나였음.

관음사는 1943년 이후에 쓰여진 『봉은사본말사지(奉恩寺本末寺誌)』에 의하면 신라 진성여왕 9년(895) 도선대사가 세운 비보사찰(裨補寺刹) 중의 하나라고 전함. 조선 초기에 쓰여진 『신증동국여지승람』에 변계량이 관음사의 절경을 읊은 시가 수록되어 있어, 이 무렵까지 관음사가 있었음을 알 수 있음. 또한 영조 때 쓰여진 『여지도서』에도 관음사가 보임. 예로부터 관음사 아래에 있는 승방벌이라는 마을과 그 앞에 승방교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관음사는 작은 규모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임.

철종 14년(1863) 8월에 행념이 당시 철종의 장인인 영은부원군 김문군의 시주를 받아 다시 고쳐지었음. 1975년에 중창을 발원하여 7년여 동안 여러 건물을 차례로 중수하였음. 관음사 입구에는 수령 300여년의 느티나무가 있어 지정보호수로 관리되고 있음.



관악산 북쪽 기슭 관악구 낙성대동 산 48번지에 위치한 낙성대는 고려시대 명재상이었던 강감찬이 태어난 곳으로, 성역화하고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에게 개방하고 있음. 그런데 강감찬의 본래 출생지는 지금 공원 터의 동북쪽 약 100m 정도에 위치한 봉천동 218번지 14호와 19호 지역임. 그가 출생할 때 하늘에서 별이 떨어졌다고 하여 이 생가 터를 낙성대라고 불렀다고 전해짐.

1973년 당시 강감찬 생가 일대를 성역화하여 길이 보전하라는 박정희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서울시는 이곳 일대 약 1만평을 물색하여 이듬해 6월 10일에 준공하여 공원으로 지정하였음. 공원 경내에 5만그루의 나무를 식재하고, 공원 입구에 큰 연못을 파서 구름다리를 설치하였으며, 성역화 지역 내에도 낙성교를 두었음. 따라서 광장과 놀이마당 등 휴식처가 마련되고, 관악산 기슭이라는 지리적 위치의 이점과 조화되어 사시사철 찾는 사람이 많아 서울 남부지역의 명소가 되고 있음.

낙성대 3층석탑(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4호)은 봉천동 218번지의 본래 낙성대터에 있던 것을 1964년에 보수하여 1973년에 현재의 낙성대를 정화하고 옮긴 것임. 원위치에는 높이 2m의 유허비(遺墟碑)를 세워놓고 서울특별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하였음. 관악구는 1988년 이후 9·10월이면 '낙성대 인헌제'라고 이름 한 제례의식과 민속놀이 등 문화행사를 개최함. 이 행사는 강감찬 장군의 위업을 기리며, 주민화합과 향토애를 고취시키기 위한 축제임.



서울대학교

1946년에 설립된 한국 최초의 국립 종합대학인 서울대학교는 대학본부와 14개 단과대학으로 이루어진 관악캠퍼스와 의과대학·간호대학으로 이루어진 연건캠퍼스로 나뉘어 있음.



약수암

약수암은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로 창건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없음. 《봉은본말사지》에 따르면 어느 때인지는 모르나 김처사(金處士)라는 사람이 초가삼간을 짓고 수도하던 것이 절의 시작이라고 함. 그 후 1880년(고종 17)에 명성황후가 법당을 건립하면서 절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음.



천주교
삼성산성지

삼성산성지는 1839년 기해박해 때 새남터에서 순교한 성 앙베르(L. Imbert) 주교, 성 모방(P. Maubant) 신부와 성 샤스탕(J. Chastan) 신부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교회 사적지임. 본래 '삼성산'이란 명칭은 고려 말의 명승 나옹, 무악, 지공 등이 수도한 곳이라는 데서 유래되었음. 그런데 이곳 한 자락에 천주교 성직자였던 세 명의 선교사의 유해가 안장되었고, 그 결과 1970년대 이후 천주교 안에서는 '삼성산'을 가리켜 '세 명의 성인 유해가 안장된 성지'로 설명하게 된 것임.



호암사

대한불교조계종 직할교구 본사인 조계사의 말사인 호암사는 1407년(태종 7) 왕명으로 창건되었음. 당시 삼성산의 산세가 호랑이 형국을 하고 있어 과천과 한양에 호환(虎患)이 많다는 점술가의 말을 듣고 산세를 누르기 위해 창건하였다고 함. 호갑사(虎岬寺) 또는 호암사(虎巖寺)라고도 함. 조선 후기까지의 연혁은 거의 전하지 않고, 다만 1841년(헌종 7) 4월에 의민(義旻)이 상궁 남(南)씨와 유(兪)씨의 시주를 받아서 법당을 중창한 기록이 있음. 1935년 만월(滿月)이 약사전을 중건하여 오늘에 이름. 건물로는 약사전과 요사가 있고, 약사전 내에 약사불과 신중탱화가 모셔져 있음.



한우물

한우물 및 주변 산성지는 호암산 정상에 있는 길이 22m, 폭12m의 작은 연못 규모로 우물로 네 주변을 화강암으로 쌓았으며, 산 정상에 있으면서도 늘 물의 양이 변함없고, 항상 맑은 상태로 고여 있어 신비로움을 더해 주고 있음. 한우물은 용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으며, 가뭄 때에는 기우제를 지내고 전에는 군용에 대비하였다고 함. 이 연못 모양의 우물이 만들어진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수를 위한 발굴당시 확인된 바로는 삼국시대에 만들어진 연못이 현재의 연못 밑에 묻혀 있었으며, 그 위에 어긋나게 축성한 연못이 다시 조선 초기에 만들어졌음이 밝혀졌음.



6코스

코스명	6코스-안양천코스		지역	금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강서구		
개요	안양천코스는 석수역에서 출발해 안양천, 한강을 따라 걸어 가양역에 도착하는 코스이다. 이 코스는 다소 길지만 지하철역이 곳곳에 위치하고 있어 대중교통의 접근이 편리하고, 전 구간이 평탄한 지형으로 수월한 트레킹이 가능하다. 서울의 하천과 한강을 만끽할 수 있어 숲길이 대부분인 다른 코스와 차별화가 된다. 곳곳에 운동시설, 산책로, 편의시설, 휴게시설 등이 다수 위치하고 있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석수역~안양천~한강~가양역				
	거 리	17.8km	소요시간	4시간 30분	난이도	하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1호선 석수역 2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입구				
연계코스						

안양천	안양천(安養川)은 한강의 지류 중 하나임. 경기도 안양시를 지난다 하여 안양천이라는 이름이 붙었음. 안양천은 경기도 의왕시에서 발원하여 왕곡천, 오전천, 학의천, 산본천, 수암천과 합류하며 경인선 구일역(안양천철교)부터 올림픽대로 영창교까지 국가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음. 안양천로와 서부간선도로가 안양천과 나란히 지나가고 있음. 서울특별시에서는 양천구, 구로구, 강서구, 영등포구, 금천구, 경기도 광명시의 경계가 되기도 함.	
목동 종합운동장	목동 종합운동장은 서울시가 생활 체육의 저변 확대와 아마추어 야구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1987년 양천구에 건립한 운동장임. 주경기장, 야구장, 실내빙상장의 체육 시설과 사격장, 체력단련장의 부대 시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운동장 주차장과는 별도로 유수지를 복개하여 조성한 주차 공간을 제공하고 있음. 육상 경기, 축구 경기, 아마추어 야구 경기, 빙상 경기, 아이스발레 등의 행사가 개최되며, 인근에 목동 대단위 주택 단지 거주민이 편의시설로 많이 이용하고 있음.	
양화교폭포	양화교 앞에 있으며 1979년 7월 27일에 준공된 양화교폭포는 높이 15m·길이 98m의 규모로서 주 폭포를 포함하여 모두 6줄기의 폭포수가 쏟아져 내려옴. 주 폭포는 높이 12m·넓이 15m 규모이며, 나머지 폭포들은 높이 12m·넓이는 각각 2~3m임. 폭포가 쏟아져 형성하는 연못 주변에 180개의 수중등과 투광등을 설치해 놓아 밤이면 아름다운 야경이 연출됨. 폭포 주위에는 녹지대를 조성하여 시민공원으로 활용하며, 파라솔·벤치·식수대·화장실·휴게실 등과 주차장도 설치되어 있음.	
황금내근린 공원	넓이 2만 2,002㎡로, 1993년 11월 1일 개원한 황금내근린공원은 서울 올림픽대로를 따라 길게 뻗어 있으며 올림픽대로와 맞닿는 면에는 높은 펜스가 있음. 농구장·테니스장·배드민턴장·소운동장 등의 체육공간과 화장실·정자·벤치 등이 있음. 스트로브트나무·은행나무·벚나무·느티나무 등이 있고, 나무 사이로 700m의 탄성고무 산책로가 있어 조깅하거나 산책하기에 좋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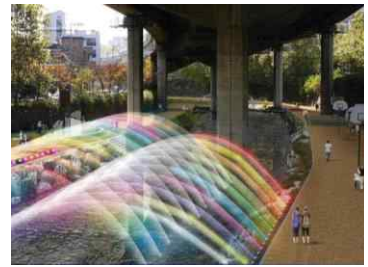
7코스

코스명	7코스-봉산·앵봉산코스		지역	마포구, 은평구		
개요	외사산의 7코스인 봉산·앵봉산코스는 가양역에서부터 출발하여 과거의 난지도로 유명한 지금의 노을공원, 하늘공원을 통과하고 2002년 이후로 많은 사람이 찾는 월드컵경기장을 지나 진입하게 된다. 봉산과 앵봉산은 특별한 트레킹 기술을 요하지는 않으며 급한 경사지와 통과하기 어려운 곳은 정비가 잘 되어 있어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봉산과 앵봉산에는 수국사, 서오릉 등 역사적 유산이 많아 볼거리가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코스 정보	세부코스	가양역~노을공원~하늘공원~월드컵경기장~봉산~앵봉산~구파발역				
	거 리	18.6km	소요시간	7시간 20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9호선, 가양역 4번 출입구				
	도 착 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입구, 북한산 인접지				
연계코스	홍제천, 수국사, 서오릉, 은평뉴타운					

노을공원	노을공원은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저녁노을을 볼 수 있는 문화예술공원으로, 조각작품, 전망데크 등과 더불어 넓은 잔디밭에서 시민들이 여유로움을 즐길 수 있음. 또한 노을공원은 고라니, 삿, 너구리 등 야생동물이 살고 있는 서울의 대표적인 생태보고이기도 함.	
난지천공원	월드컵공원 내에 위치한 난지천공원은 한강변의 난지도 쓰레기 매립장이 폐쇄된 자리와 그 주변에 조성되었음. 난지천을 생태하천으로 복원하여 갈대가 우거지고 버드나무와 각종 식물이 군락을 형성하고 있음. 하천 외의 주변에는 어린이놀이터와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및 인조잔디축구장, 산책로 등의 시설이 마련되었음.	
하늘공원	한강 상류 쪽에 위치한 제2매립지는 면적이 19만㎡이고 난지도 중에서 토양이 가장 척박한 지역임. 하늘공원은 자연 천이가 진행되는 생태적 환경을 갖추고 있다기보다 쓰레기 매립지 안정화공사의 결과로 형성된 인공적인 공원임.	
월드컵경기장	마포구 난지도길에 위치한 월드컵경기장은 2002년 월드컵으로 인해 유명해진 곳으로 66,806명이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임.	

홍제천

서울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걸쳐 흐르는 홍제천은 지방 2급 하천으로 조선시대에 천변에 중국의 사신이나 관리가 묵어 가던 홍제원이 있었던 까닭에 '홍제원천'이라고도 함.
홍제천은 생태하천으로 복원되어 많은 시민이 이용하고 있음.



수국사

대한 불교조계종 수국사는 조선조 제7대 세조대왕 5년(1459년)에 세조의 장남 의경세자의 극락왕생을 위해 경릉 동쪽에 정인사라는 이름으로 건립되었음. 그 후 화재로 소실되어 오랫동안 폐허로 남아 있다가 갈현동 태화산 자락에 다시 짓게 되었음.



서오름

서오름은 경기도 고양시 용두동(龍頭洞)에 있는 사적 제198호 조선시대 왕실의 무덤으로 경릉, 창릉, 익릉, 명릉, 홍릉 등 총 오름이 있음.



8코스

코스명	8코스-북한산·도봉산코스		지역	은평구,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개요	8코스는 북한산 둘레길을 이용해 통과하는 노선으로 이미 개통이 되었고 정비가 잘되어 있다. 대체적으로 경사가 급하진 않지만 약간의 코스에서 어려움이 있다. 또한 산 코스임에도 노선이 길어 하루동안 코스를 통과할 수는 없다. 8코스는 대체적으로 사찰과 문화재뿐만 아닌 계곡 등의 자연적 요소 등이 분포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한 코스이다.					
코스 정 보	세부코스	은평뉴타운~선림사~북한산생태공원~탕춘대성암문~불심원~연화정사~성북생태체험관~빨래골지킴터~이준열사묘소~419국립묘지~봉황각~우이령길입구				
	거 리	23.9km	소요시간	14시간	난이도	중급
교통편	출 발 지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 3번 출입구, 북한산 인접지				
	도 착 지	지하철 1호선 7호선, 도봉산역 1번 출입구				
연계코스	북한산 둘레길					

선림사

은평뉴타운 3지구 뒤편에 인접해 있는 선림사는 최근에 창건되어 오래된 문화재가 없으나 쪽쪽 뾰은 소나무가 많아 운치가 있는 사찰임.



북한산생태 공원

국유지 내 무허가 건물들을 헐고 북한산 둘레길과 연결되는 편의시설 및 휴식공간을 갖춘 북한산생태공원이 조성되었음. 이곳은 특히 북한산 국립공원에서 길음 뉴타운으로 이어지는 녹지축을 복원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탕춘대성암문

탕춘대성암문은 대남문과 비봉능선에서 이어져 내려와 조선시대 도성과 북한산성을 연결하여 축성된 성문임.



불심원

탕춘대성암문을 지나 길 옆에 있는 작은 암자인 불심원은 북한산 둘레길 안내판과 함께 소나무 숲 사이로 들어가는 산책로를 안내함.



연화정사	삼각산의 정기를 받아 염불수행 도량으로 건립한 연화정사는 대한불교 본원종으로 평창동의 전망이 한눈에 보이는 명소임.	
성북생태 체험관	북한산에 인접하여 위치한 성북생태체험관은 자연학습을 통해 식물과 동물에 대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으로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함께 보고 즐길 수 있는 곳임.	
빨래골지킴이	빨래골은 삼각산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물의 양이 많아 '무너미'라 불리던 곳임. 물이 많아 자연적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인근 주민들의 쉼터와 빨래터로 이용되었고, 당시 대궐의 궁중 무수리들이 빨래터와 휴식처로 이용하면서 '빨래골'이라는 명칭이 유래되었으며 지금도 일반인들에게 널리 통용되고 있는 지명임.	
이준열사묘소	한말의 독립운동가 이준(李儁 1859~1907)열사의 묘역 입구에는 위훈비와 홍살문이 서 있고, 묘역으로 올라가는 숲속 오솔길 곳곳에 이준이 남긴 말을 적은 비석들이 배치되어 있음. 묘역에 들어서면 이준의 홍상부조가 부착된 벽체 아래에 태극기가 새겨진 석판이 놓여 있는데, 그 석판 밑에 이준열사가 묻혀 있음.	
419국립묘지	1963년 9월 20일 약 3,000평으로 건립된 4·19국립묘지는 한가운데 4·19혁명의 기상을 상징하는 높이 7척의 탑주 일곱 개가 솟아 있고, 주위에는 수호신상 및 각도를 달리한 20개의 만장이 조화를 이루었음. 진입로 앞에 세운 '민주의 부리'는 9개 기둥의 화강암 조형물로 민주주의 발원지임을 뜻하고, 중앙 양측에 마련된 청동재질의 '자유투사'는 독재정권에 항쟁하는 모습을 담았으며, 화강암 재질의 '정의의 불꽃'은 높이 9m의 불꽃형상으로 4·19의 정신을 뜻함.	
봉황각	1969년 9월 18일 서울특별시유형문화재 제2호로 지정된 봉황각은 1912년 6월 19일 천도교 제3대 교조인 의암 손병희(孫秉熙 :1862~1922)가 천도교의 신앙생활을 부리내리게 하는 한편, 보국안민(輔國安民)을 내세우고 천도교 지도자들에게 역사의식을 심어주며 일제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기 위하여 항일독립운동을 이끌 교역자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었음. 독립운동사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 민족의 성지로 재인식되고 있으며, 후세들의 역사탐방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있음.	

부록 2. 설문지

서울둘레길 조사야장

항목		지점	양호	불량	특이사항		
조사구간	훼손현황	나지규모					
		셋길/분기					
	시설물 현황	공간시설	편의/휴게시설	안내센터			
				화장실			
				계단			
				약수터			
				쉼터	정자		
					데크전망대		
				산림욕장			
				운동시설			
				응급처치시설			
				기타			
		교육공간	자연생태교육장				
			역사문화교육장				
			기타				
		조사자	안내시설	노선안내판			
	방향안내판						
	응급안내판						
	기타						
	기상상태	배수시설					
활용가능 자원분포 현황		생태자원	뷰포인트				
	군락지						
	노거수, 괴목						
	아름다운 나무						
	희귀식물						
	기암괴석						
	기타						
	역사/문화 자원	뷰포인트					
		사찰 및 종교공간					
		굿당					
		기타 역사문화유적지					
		묘지 및 기타					

서울둘레길 매뉴얼

1. 시설물현황(현재 존재하고 있는 시설물에 대한 조사)과 자원분포 현황(향후 시설물 등의 요구에 대한 조사)으로 구분한다.
2. 공간시설은 건축물/영역/시설물 등이 있는 곳으로 하고, 안내시설은 간판/말뚝표시 등으로 하며, 배수시설은 양호와 불량으로 표시한다.
3. 시설물의 양호/불량의 정도: 불량기준은 노후/훼손/위치부적합/미관상부적합으로 한다.
4. 시설물 현황의 공간시설
 - 1) 편의/휴게
 - ① 약수터는 물의 적합·부적합을 표시하고, ② 데크전망대는 뷰포인트를 볼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지점을 모두 포함하며, ③ 계단은 데크/나무/돌 등을 모두 포함하고 특이사항에 계단의 길이를 명시한다.
 - 2) 교육
 - ① 교육장은 자원생태/역사문화의 설명이 되어 있는 부분을 모두 포함한다. 즉 자원설명이 되어 있는 인근을 교육공간으로 본다.
5. 시설물 현황의 안내시설
 - 1) 노선안내판 : 종합안내와 노선안내 시설을 포함한다.
 - 2) 방향안내판 : 화살표 / 기둥 / 말뚝 등의 모든 방향 안내시설을 포함한다.
6. 시설물 현황의 배수시설
 - 1) 배수시설 : 배수로/배수대/암거시설까지 포함한다.
7. 발굴자원분포는 생태자원과 역사/문화 자원으로 나뉜다.
 - 1) 생태자원의 군락지는 기타사항에 초본/관목/교목으로 상세하게 구분해준다.
예) 둥글레, 고사리, 진달래, 철쭉, 참나무, 소나무 등
 - 2) 역사/문화 자원 기타역사문화 유적지는 현재 공식적으로 활용되지 않는 곳으로 본다.
예) 돌에 한문이 새겨져 있는 곳/ 이야기가 있는 곳/ 터만 남아 있는 곳 등